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7월 7일(월) 제 3127호

'전북 AI신뢰성센터' 과기부 공모사업 통과

총 480억 들여 덕진구에 구축
과기부 공모 통과 전주 유일
정동영 "전주 새 미래먹거리 발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사업에 전주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5년간 총 사업비 480억(국비 300억·지방비 180억) 사업비가 책정된 이번 사업이 통과되면 전주시 덕진구 첨단벤처단지 내에 AI신뢰성센터가 들어서고, 기업 대상 AI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AI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교육 지원을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전국 6개지역이 지원했지만 전주시만 최종 통과해 전주시의 유일한 과제가 됐다.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TTA가 주관하는 전주시 첨단벤처단지에 480억 규모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추진된다. 과기부 공모사업 통과 이후 기재부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을 기반으로 책정된 이번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AI, Trustworthy AI)'를 골자로 AI산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생태계를 조성하는 허브센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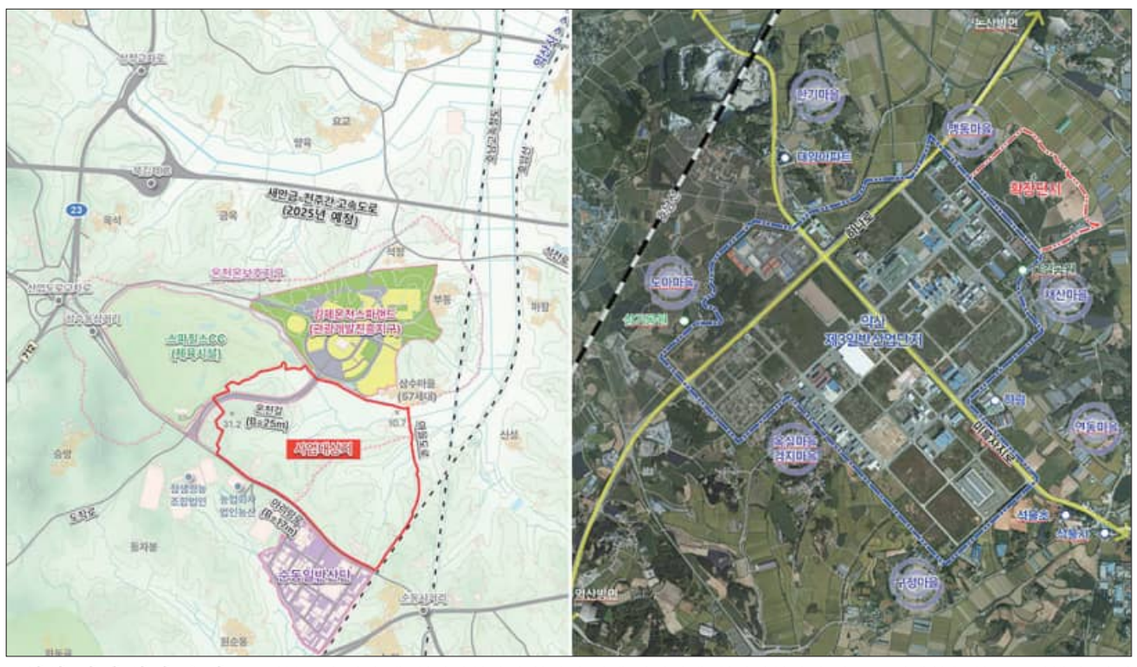
AI기술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AI위험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대안으로 통과시키며 AI의 진흥뿐 아니라 AI제품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왔다.

청신호가 켜진 현 사업이 26년 본예산에 반영돼 전주 덕진구에 들어선다면 ▲AI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대상의 신뢰성 향상 지원 ▲AI활용 아이디어 보유 기업 대상 지원 ▲ AI신뢰성 검·인증 시설 및 장비구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신뢰성 테스트 환경 등의 연구가 조성된다.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검·인증)은 품질 향상을 넘어 한국 기업의 생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전주의 큰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AI 조찬포럼을 열어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정책 간담회를 주관했으며, AI 진흥 및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선도해 왔다.

정 의원은 "AI기본법을 입법하고 '국가전략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던 성과로,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하고 과방위에서 이뤄낸 쾌거다"며 "소버린AI 등 기술주권 문제가 화두에 오른 지금 AI신뢰성센터를 통해 전주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익산·김제 산단 승인 전북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과 김제 지평선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 좌, 신규승인 김제 제2일반산단. 사진 우, 확장되는 익산 제3일반산단. <사진=전북자치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앞두고 찬반 여론 격화 … 자중 여론 비등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후 통합 방식 투표 여부 결정할 듯
'일방 추진'vs'괴담 퍼뜨려' 여론전

이재명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찬반 여론전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장관 임명 직후 정부가 통합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완주 지역은 찬반 의견이 정면 충돌하는 정치적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전북자치도와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으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정부의 통합 방식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통합 방식으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결정은 향후 통합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윤호중 지명자에게 완주·전주 통합 관련 보고가 이뤄진 만큼, 빠르면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주민투표 여부가 확정되고, 투표는 8~9월 중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장관 부재로 인한 공백 상태가 약 6개월간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인선이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완주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이 민심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통합반대대책위는 최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식 군의장은 "이번 통합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며, 전주시 중심의 행정 재편은 인접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유 군수도 완주군청에서 별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완주지역 통합 찬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통합의 장점과 실익을 홍보할 계획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반대 측은 사실과 다른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전북도가 제정한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완주의 실익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두 지역은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며, 정쟁이 아닌 공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민협의회 측도 완주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시청사 완주 건립 찬성 3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합류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 통합 찬성·반대 양측 단체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道, 익산·김제 산업단지 2곳 승인…지역산업 육성 가속

김제지평선제2산단 지정 승인
익산제3산단 확장 하반기 착공
용지 공급·기업유치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지역 주력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총 272,815㎡(8만3천 평)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되고, 내부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제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해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2,272㎡(약 27만 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2,04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은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입주 업종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식료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구성됐다.

두 산업단지 모두 사업 시행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 사전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통상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해 기업 입주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전북자치도, '복지 속 숲길' 조성 본격화

8월 1일까지 산림복지 나눔숲 등 총 35억 규모 공모

전북자치도가 복지와 환경을 융합한 녹색복지 확산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가 숲을 통한 복지 향상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의료기관 등 생활공간에 숲을 조성하거나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하는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전액 국비 또는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22억)과 '취약지역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3억) 2개분야에 대해 공모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는 '산림복지 나눔숲(실외)'은 전액 국비로 개소당 2억까지 지원되며, 기 조성된 도시숲에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무장애 도시숲'과 보행약자층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숲길을 정비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며 개소당 각각 5억, 16.5억까지 지원된다.

공모 기간은 지난 2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실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사업을 접수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최종 응모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7년부터 녹색자금 공모를 통해 도내 총 173개소에 나눔숲·무장애길 등 녹색복지시설을 조성해 왔으며, 올해도 12억5천8백만원의 녹색자금을 확보해 익산, 정읍, 완주 등 3개소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남원에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

송금현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선진형 녹색복지 모델을 확산시키는 기회다"며 "지역 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道-시군 부단체장, 민생 현안 정책 공조 체계 강화

소비쿠폰 지급공공요금 안정 건설경기 회복 등 집중 협의

전북자치도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확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실질적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도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지급 대상자 및 규모 파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사전 협의 등 실행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도-시군 공동결의문도 체결됐다.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다가오는 축제·행사 시즌에 대비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NS푸드페스타 IN 익산,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진안홍삼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협조와 도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그간 도는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꾸자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현장에서 도전·혁신·성과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이 도와 함께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생활개선전북도聯, 한마음대회서 결속 다져

14개 시군 650여 명 참석 농촌 현장 안전 실천 다짐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25년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과 회원 간 소통·결속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도농업기술원이 후원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생활개선회원과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시군 단체기 입장, 생활개선회 활동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농작업 안전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생활개선회원과 내빈이 함께 농촌 현장의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어울한마당에서는 시군별로 구성된 14개 팀이 노래, 연극, 난타 등을 활용한 농작업 안전실천다짐경진대회를 진행하며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이행단 회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활개선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리더다"며,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실천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8만여명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전북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온 상승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투입해 △직접 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혈압·혈당 주요 지표 체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처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 등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폭염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외출 자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오후 2시~5시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실내외 온도차를 5℃ 이내로 유지해 냉방병 예방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등이다.

김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베트남 5천명 관광객 유치 협약

관광 상품 개발 등 업무협약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달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나트랑을 방문해 현지 주요 관광·교육 기관 및 기업과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MICE 행사 지원 △국제 학술회의 공동 개최 △국제 유학생 교류 및 지원 △문화예술 교류 행사 공동 기획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요 성과는 재단과 베트남 현지 관광 전문 기관 간에 3년간 5,000명의 관광객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해당 협약은 전북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팸투어 운영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광객 유입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4개 기관 및 기업과 체결됐다. △카인호아 교육과학연구소 △STP(전문가 역량개발 연구소) △비엔안(브리티시) 국제교류 유한책임회사 △그린스페이스 투자 유한책임회사 등 국제 교육·관광 기업이다.

최영규 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국제 관광 협력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민간과 공공, 학계가 함께 하는 실질적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원택 의원 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의원은 "한우법은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다"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한우농가의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한우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촉구 등 입법 전 과정을 책임있게 이끌면서, 3년 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주시, 세계도시정상회의서 도시 미래 설계

세계 70여개 도시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청춘별채 등 주목 받기도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시장포럼'에서 세계 70여개 도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과 정·재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의 문제를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교환하며, 우수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다.

올해 회의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적 정책, 세계적 영향(Livable and Sustainable Cities: Local Actions, Global Impact)'을 주제로, 도시 간 협력과 공동 해법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주시를 대표해 윤동욱 부시장이 참석해 세계 주요 도시 관계자들과 격이없는 대화를 나눴다.

윤 부시장은 주요 세션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 △신뢰할 수 있는 도시 공공서비스 제공 △도시 간 협력 사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 접근 △도시 회복력을 위한 물 관리 전략 등 도시들이 직면한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주시의 정책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주시의 우수사례로 청년주거 정책인 '청춘별채'와 시민참여 및 협력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소개하며 참여 도시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윤 부시장은 퀸즐랜드 남동부 시장 협의회(브리즈번 대표)와 자매도시인 중국 쑤저우시 관계자 등과 정책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우호교류 간담회를 갖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 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세계 70여개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동욱 부시장은 "이번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전주시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유치 등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효자5동 주민과 대화의 장 마련

대한방직 복합개발 등 주요 현안 질의 응답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대변혁 도약을 위한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시작했다.

우 시장은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8개 동을 순방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내란에 따른 대통령 파면이 이어지며 21대 대선 일정 관련해 소통 행보를 잠시 중단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4일 효자5동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올해 하반기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효자5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소화했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시정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분야 18대 전략에 대한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효자5동 주민과의 주요 대화에는 △대한방직 공장부지 복합개발 사업 △황방산 터널 개통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앞으로 우 시장은 하반기 오는 11월까지 매주 2~4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며, 오는 8일 진북동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사랑콜앱' 도착시간 목적지 실시간 확인 대폭 개선

자녀·늦은 밤 이용 안심 할인쿠폰 4천원으로 인상

'전주사랑콜' 택시호출앱 서비스 환경이 대폭 개선돼 새롭게 운영된다.

전주시는 기존 전주사랑콜 운영업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사랑콜'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전주사랑콜을 검색해 다운로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전주사랑콜' 앱은 배차된 차량 도착시간 안내와 함께 목적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 자녀 택시 이용이나 늦은 밤 택시 이용을 불안해하는 사용자를 위해 가족 또는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이동 상황을 전달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민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 택시 콜센터와 민원 콜센터로 분리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빠르게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주사랑콜 앱 다운로드 후 자동결제카드를 등록하면 제공하던 3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 금액을 400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월 5회 이상 이용자에게 지급하던 택시요금 할인쿠폰 대신 자동결제로 택시를 이용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이는 전주사랑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이와 관련해 쿠폰 사용 기간은 1개월로 자동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 기간은 12개월로 쿠폰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은 "많은 시민이 더욱 편리해진 전주사랑콜 서비스와 함께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전주사랑콜이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6월 폭염·열대야 평균기온 역대 최고

기후 특성·원인 분석 발표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2025년 6월 전북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전북 평균기온은 23.0℃로 평년(21.6℃)보다 1.4℃ 높았고, 가장 더웠던 2013년(22.8℃)보다 0.2℃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동쪽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로 이어졌다.

19일 전북 8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또 27일 전북 일부지역 폭염특보는 28일 전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29~30일에는 전북 일평균기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6월 전북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일, 1.1일로 모두 역대 2위를 기록했다.

6월 전북 강수량은 312.1mm로 평년 164.4mm 대비 189.8% 수준으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0일로 평년 10일과 같았다.

상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13~14일 중국 상하이 부근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전북 일부지역에 15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또 20~21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남원과 순창, 정읍은 일강수량 6월 극값을 경신했다.

전북의 올해 장맛비는 19~20일에 시작돼 평년 6월 23일 보다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 높은 해수면온도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과 관련있다.

필리핀 부근의 대류활동에 의한 상승기류 강화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 남쪽에 하강기류를 강화시켰고,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충분한 열원을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6월 하순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꼭 실천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빈용기 수집소' 완산구서도 운영

자전거경륜장 내 서1문 앞 보증금 현금으로 돌려받아

완산구 '빈용기(공병) 반환수집소'은 자전거경륜장 내 서1문 앞 유휴부지(완산구 백마산길 22-14)에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치됐다.

수집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더불어 상주 인력에 따른 누구나 반환 수량 제한 없이 편리하게 공병을 반환할 수 있다.

특히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병, 맥주병, 음료병 등 빈용기를 반환하면 제품 가격에 포함돼 있던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력해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빈용기(공병) 회수체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덕진구 빈용기(공병) 반환수집소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총 107,860병을 회수해 총 11,519,100원 환급 성과를 거뒀다.

시는 완산구 반환수집소 개소로 시민들은 오전·오후 시간대 모두 공병을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자원 재활용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검토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4일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긍정적 검토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배형원 법원행정차장을 만나 이 안건에 대한 적극적 검토 입장을 끌어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설치특위 위원장은 "이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익산시갑)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 등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전북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최근 같은 처지인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 도민 민원만족도 '올100'

도민 체감 소방행정 성과

전주완산소방서가 도민 민원만족도 부문 조사에서 올100점을 기록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가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BSC(성과관리체계) 부서평가 민원만족도 전 항목 조사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도내 15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주완산소방서의 올100점 기록은 전북도 소방행정 역사상 보기 드문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는 전주완산소방서의 민원 응대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가 도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셈이다.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방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축·완비·위험물·방염 등 민원 처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URL 콜백(외부용역 설문, 휴대전화 URL문자 발송)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담당자 접촉 용이성 △안내 내용 적절성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원 현장에서 도민들과 직접 마주한 민원실 근무자 이홍상 소방위, 이성서 소방장, 김경태 소방교, 김영훈 소방교 등 4명의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민원만족도 평가 '1위' 달성을 기념해 해당 직원들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전북, 상생으로 지역건설산업 부흥 모색

지역건설 활성화 위원회 개최
새만금 우대·분할발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
지역업체 수주 확대 논의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건설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점검, 수범사례 공유 및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조사항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에 각별한 관심과, 일반 공공공사에 있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현재 제도마련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업체 활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설명과 논의의 장을 가졌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 건설 관련 단체 모두 뜻을 모으고 최대한 협력해야 할 때다"며 "지역건설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제와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 등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 주요 건설협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공공공사 대형건설현장 방문과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본사 방문을 통한 현장세일즈 활동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민관협력 소통 창구 연다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 열려
협력 논의·정기소통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이하 '새범위')와 군산지역 기업인·소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전반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부개발 가속화, 기업투자 유치,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 다수가 지역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도 함께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회생 보듬자금, 저신용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지원, 카드수수료 경감, 전북천년명가 육성 등 총 18개 사업(2천161억 규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지난 4일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이하 '새범위')와 군산 기업인·소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으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실증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맑은물지킴이' 어르신일자리 창출 '한몫'

수질검사 시니어 일자리 창출
수돗물 신뢰 회복 두 마리 토끼

전주시 '맑은물지킴이' 사업이 지역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수돗물 안전지킴이에 많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맑은물지킴이' 사업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단독주택, 공동주택, 경로당 등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수돗물 음용을 권장하는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은 시와 전주시니어클럽이 협력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에는 현재 10명의 참여자가 활동 중으로 매년 검사 가구수를 확대해 지역 사회의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628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로당과 공동주택으로 검사 대상을 넓혀 경로당에서는 수질검사와 함께 수돗물 음용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시민 접점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시는 맑은물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개구역 3개소에서 6개 구역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주2회 수질검사를통해 수질사고 예방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맑은물지킴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수돗물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수질 검사와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40억 지원

전북경진원, 신청 접수 시작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오늘부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육성자금은 총 44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자금별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 원이 지원된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5억 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7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6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로 협약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의 이차보전율 2~3%를 차감한 금리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2025년 3분기 자금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경

진원 홈페이지, 또는 통합관리시스템 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또는 경진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20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여봉 경진원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을 발판 삼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운영위원 화합·역량 강화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3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화합·역량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협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결속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올해 상반기 협회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지역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계선 협회 고문변호사 초빙 법률 AI 슈퍼 로이어에 대한 시연이 참석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소재철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건설산업이 묵은 산업이 아닌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본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건설산업 전문 챗봇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신협,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 제작 지원

모아모아통장·어부바 인형 등
대표 브랜드 소품으로 등장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tvN 새드라마 '서초동' 제작을 지원하며, 드라마 속 주요 장면을 통해 신협 대표 금융상품과 브랜드 캐릭터 등을 선보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5일 첫 방송 된 '서초동'은 법정 휴먼드라마다.

서초동 법조타운을 배경으로 한 다섯 명의 어쏘 변호사(법무법인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가 겪는 일상과 성장, 갈등을 그린다.

특히 이종석, 문가영, 강유석, 류혜영, 임성재 등이 출연하며, 따뜻한 감성과 리얼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전한다.

신협은 이번 제작 지원을 통해 자사의 대표 파킹통장인 '모아모아통장'과 인기 캐릭터 '어부바 인형'을 주요 소품으로 활용해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을 유도한다. 해당 소품들은 드라마 내 사무실, 가정,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등장하며, 생활 속 금융 브랜드로서의 신협 이미지를 보일 예정이다.

하현욱 홍보본부장은 "드라마 '서초동'을 통해 젊은 시청자층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신협의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신협, 감성 있는 금융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은 tvN '정년이', KBS2 '다리미 패밀리', 유튜브 예능 '할명수'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콘텐츠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MZ세대와의 접점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자체감사기구와 MOU

양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렴 문화 확산 기반 마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 자체감사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변산 바다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감사기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반부패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서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국립대병원 감사협의회장 전북대병원 정경복 감사와 전임 회장인 서울대병원 박경오 감사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인력의 상호 지원 및 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자체감사·내부통제 우수사례 정보 공유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병원 정경복 감사는 "국립대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립대병원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감사협의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 부안농협 상생협의회 참여

경기농협 전주 올림픽 유치 지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와 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는 지난 3일 부안농협에서 열린 부안농협·안양원예농협 '상생협의회'에 임직원 100여명이 함께 참석해 진행했다.

이날 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유치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 경기농협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의회에는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김원철 조합장(부안농협), 경기농협 엄범식 총괄본부장과 박제봉 조합장(안양원예농협)이 함께 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우리 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36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경기농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 드린다" 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도교육청, 교실 넘어 세계로‥86개교 교사 한자리에

국제교류수업 중간발표회 우수사례 공유·성장 모색

전북의 국제교류수업 학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본관 2층 강당에서 '2025. 국제교류수업 학교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제교류수업을 운영 중인 도내 86개교 담당 교사들이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교류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전북형 국제교류수업은 단발성 해외 체험학습이나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의 일부로서 실천적 국제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공동수업, 해외 학교와의 교과 연계 프로젝트, 국내 초청 대면 수업 등 수업 중심 교류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 중간발표회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초·중·고 대표 교사 5명의 운영 사례 나눔 발표와 분임별 심층 토의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교사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학교와의 협업 경험 △산림청 등 기관 연계 수업 사례 △주제 프로젝트형 수업 △특성화고에서의 전공 기반 수업까지 다양한 경험과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및 극복 과정도 공유했다.

특히 사전 설문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고민을 바탕으로 한 분임 토의는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과 실천 아이디어를 교사들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국제교류수업은 공교육 안에서 세계를 만나는 수업이며, 교사들의 실천이 그 중심에 있다"며 "이번 중간발표회는 학교 현장 경험과 통찰이 모여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협력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생활속 범죄 사전 차단! "범죄 제로, 클린 업"

공무원범죄 예방자료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과 품위유지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범죄 유형과 처분사례를 담은 '범죄 제로(ZERO), 청렴 업(UP)' 예방자료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학교에 배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자료 제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 인식 없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범죄 처분대상 및 절차 △주요 유형별 범죄 사례 △부패 공익신고센터 안내 등을 담았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력·상해,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 직무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도 함께 안내해 공직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무원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범죄 제로, 청렴 UP'을 목표로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에서 키운 인재, 전주 성장 동력으로 삼자!"

지난 4일 전주교육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교육지원청·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전주교육 정책포럼'이 지난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전주 지역교육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육계, 지자체,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과 지역 인재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전주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지역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전주시청 김진호 교육팀장 △전주교육지원청 오현옥 장학사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신인철 사무국장이 참여해 교육협력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 민·관·학 협력 방안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좌장을 맡은 이미영 지역과 함께 지문워원회 위원장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교육 생태계모델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크콘서트에서는 전주다움배움터 소속 공동체와 운영학교가 참여해 현장의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전주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 지역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기반이 더 공고해졌으며, 전주 지역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을 매개로 지역·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고분자 복합소재 열전도 기술 개발

국제 상위 저널 표지논문 선정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사진) 연구팀(공대 고분자나노공학과, 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이 고분자 복합소재의 열전도 특성 향상을 위한 분자 수준의 계면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열전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IF=16.9, 상위 6.1%) 2025년 7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며 학문적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가 풍부한 테트라티아풀발렌 기반 반응성 메조겐(TRM)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합성해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소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면 상호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와 열전도성 필러(육방정 질화붕소: BN, 팽창 흑연: EG) 간 계면 결합력은 약하여 열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TRM은 고유의 전자구조와 π-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우수한 계면 친화력을 실현하여 이 문제를 극복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적 분석(광물리, 열역학, 구조분석 등)을 통해 TRM과 필러의 계면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입증했으며, 실험적으로 얻어진 TRM 복합체의 열전도도는 이론값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고분자와 무기 필러 간 계면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이론적으로 규명한 사례로, 고기능성 복합소재의 설계 및 응용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임민우 박사과정 학생은 이번 표지논문을 포함해 총 9편의 제1저자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총 24건의 SCI 논문 참여), 활발한 연구 성과로 교육부장관 우수연구자 표창 및 국내외 학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민우 박사과정생은 "전자풍부 메조겐이 필러와의 계면에서 효과적인 포논 전달을 유도해 열전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기능성 필러와의 계면 설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성능 열전도성 복합소재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5년 SW중심대학사업단 하계 성과공유회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3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5년 SW중심대학사업 하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운영된 다양한 SW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학-대학원 R&D(5팀) △기업 모둠학습(7팀) △기업 튜터링(5팀) △SW 활용 동아리 활동(5팀) 등 총 22개 팀의 결과 발표와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은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AI·SW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군산대 정동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료

기초 건강 교육·습관 형성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e-복지관(관장 오단이) 아동청소년복지팀이 세이브더칠드런새움센터와 추진한 2025년 상반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공익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건강교육 및 건강 습관 형성 △건강식단 만들기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참여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건강증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세이브더칠드런새움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마음건강 회복, 정서적 돌봄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최성민 기자

이학수 시장, 시청 근로자와 오찬 … "노고에 감사"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현장 근로자 오찬, 직원 배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동행에 감사를 전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4일, 환경관리원과 교통지도원, 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근로자 2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장비 보강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장근무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장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무령왕과 떠나는 역사 여행

익산시가 백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오는 26일과 27일, 백제문화체험관에서 7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역사탐방-백제의 왕'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제 중흥기를 이끈 무령왕의 생애와 업적을 배우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의 의미를 알아보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체험 활동인 '나만의 진묘수 만들기'는 고대 수호신 진묘수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적 상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령왕릉의 발굴 이야기와 출토 유물 설명도 함께 진행돼 백제 문화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더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회차별 12명씩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7월 7~18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으로 알리는 군산 매력, 전북 교통문화연수원서 전시회

군산시가 7월 한 달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군산시 관광홍보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올 하반기 도내 시군 관광지 홍보 전시회의 첫 번째 주자로 군산시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 골목과 철길 등 레트로한 매력이 돋보이는 시간여행마을과 경암동 철길마을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고군산 섬잇길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 사진 10여 점이 선보여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국육상경기대회, 익산에서 힘찬 출발

6~10일 익산종합운동장 전국 1,600여 명 참가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 <사진=익산시>

익산에서 전국 육상 선수들과 유망주가 모여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중등부부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종목별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익산시청 육상팀의 선전도 기대된다. 중거리 부문 이우민·조현욱·김가경·오혜원, 포환던지기 이성빈, 해머던지기 장영민·김태희,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가 대회에 나선다.

또한 대회 중인 7월 8일 오후 1시 50분에는 한국신기록 수립 선수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이 열린다. 지난 6월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김태희 선수(익산시청)를 포함해 이재웅·김장우 선수(국군체육부대), 지도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요리 경연 'NS 푸드페스타' 참가자 모집

총 상금 1억 원 규모

식품산업의 중심지 익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식문화축제 'NS 푸드페스타'가 전국 요리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NS홈쇼핑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6~27일 함열읍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NS 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총상금 1억 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요리경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도 경연에 참여할 요리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30일까지 NS홈쇼핑 PR 누리집(pr.nsmall.com)에서 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요리경연 참가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리경연은 축제 첫날인 9월 26일 열리며, 주제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다. 미식 간편식 부문 50팀, 조리 전공 대학생 부문 20팀 등 총 70개 팀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9월 27일에는 특별경연이 진행된다. '아빠와 자녀 요리대회'에는 14세 미만 자녀와 아버지로 구성된 40팀이 참가하고, '글로벌 라면 경연'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팀이 이색 레시피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보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생한 요리 현장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풍성한 미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NS 푸드페스타는 우리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인 미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관광 매력 홍보 …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9월 1일~11월 10일 접수 전 국민 대상·1등 상금 1천만

정읍시가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풍경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연다. 시민부터 청소년, 시니어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의 관광 자원을 주제로 한 창작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3미·6품·9경을 비롯해 정읍의 먹거리, 특산품, 관광명소 등 정읍을 소개할 수 있는 자유 주제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응모 자격은 전 국민이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1~5분 분량의 1920×1080 FHD 이상 해상도를 갖춘 동영상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뒤,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상금은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다. 수상작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김영민 부시장 행안부 방문 특별교부세 적극 지원 요청

군산시가 지역현안 해결·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를 지난 2일 방문하여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서래교 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광대섬 탕방로 조성사업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2개 사업(82.6억원)을 건의하며 사업별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 심사 후 교부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

AR/VR 등 콘텐츠 체험

군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25년 '이어지교'는 군산시 소재의 초·중등학교 및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토·일·월 제외)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에서 진행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가유산 교육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공룡 화석 탐험, 별자리 이야기, 무형유산 탐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통 놀이와 헤리티지 시네마 등 부대행사와 더불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누구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시장 "기업이 성장해야 정읍이 커진다"

지난 4일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정읍시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바이오·미생물 특화기업, 청년 기업, MOU 체결 기업 등 30여 명의 기업인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9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 주요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정읍의 미래"라며 "시정에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하는 정읍을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다. 18개 기업으로부터 총 13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320명의 고용 창출도 달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업 기반 확장을 위해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 첨단의료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5020억원) △농생명 첨단산업단지 확장(340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청년창업 허브 구축(365억원) △반려동물 연관 산업 혁신지구 지정(317억원)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380억원) △우주방사선 신소재 테스트베드 구축(25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국가예산 중점 확보 정책협의회 개최

도로 신설 등 4개 교통 사업 논의

정읍시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치권과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북면 행복쉼터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예산 중점사업과 관련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22호선) 신설 △정읍 칠보~임실 덕치 구간(국도30호선) 개량 △부전~칠보 구간(국가 지원 지방도49호선) 시설 개량 △북면~칠보 지방도 708호선 확포장 등 총 4개 교통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치권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여름철 민간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실시

군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가 관내 민간 건설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폭염 대응 위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 현장 전반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미래차 세대 기업 지원 박차

총 8개사·10건 과제
1억 9천만원 지원
특장차 기술 혁신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미래차 세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차 기업지원 선정평가를 지난 6월 27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지난 1일 총 8개사, 10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해 약 1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경영·기술컨설팅, 과제기획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특장차 인증지원(성능시험 및 최초·계속검사), 제조현장 공정개선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집했다.

선정 평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켐틱종합기술원, 군산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5인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지원 필요성과 사업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총 6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협업사업이다.

이 중 14.3억 원은 기업지원 분야에 활용되며, 김제시의 주력산업인 특장차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지원하고자 했다"며 "향후 추가 평가와 집행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 일제 개장

피서객 맞이 본격화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개장 전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구조장비 등을 점검해 개장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4일부터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해,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해수욕장 운영은 8월 17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하루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및 편의 시설 운영을 8월 31일까지 유지하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94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총4,000여 점에 달하는 안전시설과 장비도 점검을 마치고 각 해수욕장에 적정하게 배치된 상태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16일간 야간개장을 실시,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야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야간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만만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맞물려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폭염대응 양심냉장고 8곳 운영

폭염 피해 최소화
누구나 생수 1인1병씩

전북 고창군이 폭염대응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관내 주요 거점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심냉장고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여름철,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되며, 야외활동자나 보행자 등 누구나 1인1병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장소는 △신재효 판소리공원 앞, △고창부안 축협 앞 △고창연합정형신경외과 앞 등 8곳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여름 6곳에서 '양심냉장고 생수지원 사업'을 운영해 총 4만2900병의 생수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운영되는 양심냉장고는 1대당 하루 약 500ml 240병의 생수가 비치되며, 생수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채워진다.

또한, 고창군은 앞으로도 이용 접근성이 높고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추가 설치 장소도 검토 중이며, 폭염 대응 효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쳐 가겠다"며 "무더위 속 군민들이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적극 경정청구 4억 5천여만원 환급

부가세 환급 계획 수립
재정확충 기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도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한 사업장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등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사업 등에서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2024년 7월에 부가세 환급 계획을 수립해 12월에 1차 경정청구로 500만원 환급을 받았고, 지난 5월 2차 경정청구로 4억 5천만원 환급을 받았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받는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지보안관, K-공감 우수정책 '눈길'

정부 정책매거진에 소개

민선8기 고창군의 대표적 사회복지 정책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이 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K-공감'에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마을 내 취약계층의 복지위기를 조기에 발견·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보안관은 주 3회 마을을 순회하며 위기가구를 살피고,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한다.

2025년 현재 8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보안관으로 활동 중이며, 2025년 6월 현재까지 300여건 이상의 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중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치매 의심 가구, 주거환경 취약가구 등을 발견해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연결해 위기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K-공감에 군의 복지정책이 소개된 것은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실천이 국가적 관심을 받았다는 의미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과적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하였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입지분석·사업화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입지분석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기준 김제시 논 콩 재배면적이 5,981ha로 전국 논 콩 재배면적의 약 26%(전국 1위)를 차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논 콩 생산에 따라 다양한 유통체계 및 가치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논 콩 생산과 연계한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거점화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조성계획을 수립,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에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논콩'하면 김제시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 시가 논콩의 선두주자가 된 만큼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꼭 성공시켜 김제시를 논콩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상생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54개 업소 운영자 한자리에

고창군이 지난 4일 오후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2025년 착한가격업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54개소의 업소 운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착한가격 유지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기존의 물품 제공 방식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전환해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규 지정 업소에는 인증서를 수여해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소들은 필요한 물품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에 직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업소별 수요조사를 통해 물품을 일괄 구매·배부했으나, 업소별로 요구되는 품목이 다양해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상품권 지급 방식을 도입해 착한가격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보건소, 다중이용시설 8곳 레지오넬라균 검사

고창군보건소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과 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관내 다중이용시설 8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사는 대형숙박시설, 노인 복지시설, 분수대,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서 18건의 검체를 채취해 이뤄졌고, 검사결과 해당균이 검출되진 않았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냉각탑수, 급수시설, 샤워기, 욕조수 등 물을 매개로 공기 중에 퍼져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활발한 시기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며,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시에는 고열, 오한, 기침, 전신 피로감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집단발병 사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집중 검사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감시와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동진면, 마거리트·코스모스 1만6천본 식재 테마 꽃길 조성

부안군 동진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마거리트와 코스모스 총 16,000본을 식재해 약 700m 길이의 테마길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에 조성된 문포로 주변 꽃길과 연계해, 꽃을 매개로 한 도로변 경관을 확장하고, 주민 및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테마길 조성으로 동진면은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의 가능성도 확보했다.

동진면 관계자는 "이번 테마 꽃길 조성은 마을 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가꾸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정 미비점·개선방향 의견 교환

부안군은 지난 3일 격포어촌계 회관에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부안군 고시로 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졸음 운항 등 낚시어선 선장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항 횟수 제한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영업금지 구역 지정, 기상악화시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안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출항 전 점검 의무화, 양식장 주변이나 협수로, 어항구역과 야간 운항시 속력 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해경 등 관계기관과 지역내 낚시어선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남원추어’ 뉴욕 식품박람회 진출

북미 최대 식품박람회 부스 운영
‘남원의 맛’ 추어가공식품 선봬
브랜드 인지도·수출 기반 확보

남원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뉴욕 자빗 센터에서 열린 ‘2025 Summer Fancy Food Show’ 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미국 뉴욕 자빗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북미 최대 식품 박람회 ‘2025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북미를 대표하는 B2B 식품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식품 유통 바이어, 수입업체, 외식업 관계자, 미디어 등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사업단은 ‘MIKKUYA – Taste of Namwon, Korea’라는 부스를 통해 남원 지역 특산물인 ‘추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전시 제품으로는 ‘남원추어해장국’, ‘남원추어육개장’, ‘남원추어탕 블럭’, ‘미꾸야 젤리’, ‘미꾸야 꾸이랑’ 등 다양한 추어기반 제품을 선보였으며,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프로그램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의 수용 가능성과 반응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 현지 식품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유통 조건, 가격, 포장 선호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영문 브로슈어 및 샘플 배포, SNS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후속 협의로 이어질 기회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어라는 독특한 식재료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실질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추어 식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상반기 신속집행 2년 연속 도내 2위

집행률 55.1% 14개 시군 중 2위
군 단위 1위…목표 초과 달성

순창군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에서 2년 연속 도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속히 재정을 투입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예산 3,205억 원 중 1,766억 원(55.1%)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54.5%는 물론, 군 자체목표인 55%를 모두 초과 달성한 수치다.

군은 그동안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신속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 △일일 집행상황 관리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완료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4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해 예산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신속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며 “하반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경제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하천기반과’ 신설…통합 전담 체계 구축

기존 ‘혁신개발과’ 명칭 변경
수변공간개발·하천사업 본격

완주군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기존 ‘혁신개발과’를 ‘하천기반과’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 하천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하천기반과는 △만경강 프로젝트팀 △하천관리팀 △하천시설팀 △기반조성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천과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만경강 프로젝트팀’은 수변공간 개발 및 통합 하천사업을 본격화한다. 공원, 산책로, 체험 공간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군민이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정비와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천관리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을 담당하며, 하천 점용허가, 재해복구 사업, 협의 업무 등을 통해 하천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하천시설팀’은 지방하천의 개선복구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시설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하천시설 개선을 통해 하천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며,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 시설을 제공한다.

‘기반조성팀’은 저수지와 농업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통해 농업환경의 안정화를 꾀한다. 농업용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완주군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과 안전 중심의 기반시설 관리를 뒷받침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변화가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 참가자 모집

지역 종합 문화 행사로 기획
예술 저변 확대·관광 활성 기대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가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가요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순창지회(지회장 한경연)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음악 축제로,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신인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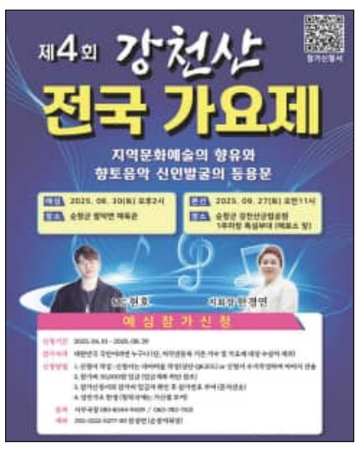
강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가요제는 음악 경연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본선에 앞서 참가자 선발을 위한 예심이 8월 30일 오후 2시 순창군 팔덕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예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다만 기성 가수나 기존 가요제 수상자는 ‘신인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29일까지 받으며, 참가자는 △네이버 폼 링크 접속, △QR 코드 스캔, △신청서 이미지 전송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30,000원이며, 신청과 동시에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강천산 전국 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지역 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강천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바이오연구원, 전남벤처포럼과 ‘맞손’

바이오 창업 투자 확대
지역 기술창업 지원 협력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전남벤처포럼(회장 황헌수)과 지역 첨단 바이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 유망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바이오 기반 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투자 연계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과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 체제를 구축해 투자기업 발굴 및 양성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포럼 개최, 네트워크 확대, 기술 자문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한 바이오 창업 아이템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바이오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성료

남원중서 21개 단체 부스 운영
370여명 학생, 체험형 진로탐색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난 4일 남원중학교에서 약 3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 개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편한세상, 남원문화원 등 21개 단체 1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진로탐색 상담, VR 드론조종 부스 등 25개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전북대 ‘인문학 지식나눔 강좌’ 시작

전북대 인문학 교수진 등 강연
지역사회 지식 기반 확장

완주군과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인문학 지식나눔 강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삼례도서관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정통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제로, 고전 인문학부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며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학·역사·철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무더운 여름 속 지적 휴식을 선사하는 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의는 완주군 내 △삼례도서관 △중앙도서관 △콩쥐팥쥐도서관 △고산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각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연에는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소속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등 총 35명이 참여해 강좌의 깊이와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체결된 ‘인문학 교육 및 지식 확산 협력 협약’에 따라 완주군과 전북대학교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인문학 대중화와 지역사회 지식 기반 확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좌 수강은 무료이며, 도서관별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시장과 함께하는 공무직 간담회’ 진행

시정현안 의견·업무 경험 공유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50명의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공유 공무직 간담회’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3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최경식 시장의 PPT 시간을 갖고 시의 추진 사업과 시정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이후 진행된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각자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 등을 공유하고 시장 경험담 등을 들으며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희망찬 남원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농업인 ‘내 브랜드 만들기’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완주군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1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산,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신규 가공참여자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가공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한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거주 농업인으로 모집 기간은 17일까지다.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며 면접으로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교육 기간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교육 장소는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다.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는 농업인들이 가공식품 제조와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크게 세 가지로 △가공식품 이론교육 △가공식품 제품화 실습교육 △가공장비 활용 교육이다.

제품화 실습교육 과목은 반찬가공, 습식가공, 건식가공, 소스과정, 발효가공, 디저트류 총 6개 과목으로 이중 2개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총 80%이상 출석해야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고산,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자가생산 농작물로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은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예감마켓’ 성료 학교밖청소년 주도 참여 바자회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가 최근 완주군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험형 바자회 ‘예감마켓’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예감마켓’은 2024년부터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새롭게 발굴된 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감성 체험과 생활물품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판매 중심의 바자회를 넘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친환경 원예 클래스(파쇄용지 화분 만들기, 다육이 심기) △자화상 그리기 클래스 등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예술적 자기 이해를 체험했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마음사랑병원이 참여해 정신건강 퀴즈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화채’는 직접 만든 화채를 현장에서 나누며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촌 왕진버스 동계면 주민에 맞춤의료 제공

순창군은 지난 3일 동계면 문화체육센터에서‘제33차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이정환 본부장, 순창군지부 신종철 지부장,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동계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구강검사와 교육, 검안·돋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마지막 왕진버스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해 매우 뜻깊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무주서 막 올려

대한민국 족구대회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가 지난 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주말(토·일) 총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리그전은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이킥스포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이 후원한다.

남자 9팀, 여자 4팀 등 총 13개 팀이 참가해 국내 족구 실업팀의 최강자를 가릴 예정으로, 일부 경기는 KBS N Sport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족구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강군 무주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대회가 족구의 세계화를 향한 의미 있는 도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성지이자 K-스포츠 중심지 무주가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 친화 도시로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자봉, 취약계층 80세대에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가 지난 3일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2025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 가족 27세대에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여름 이불, 영양 삼계탕, 미숫가루, 현미 누룽지, 보리 과자, 모기약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와 임실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임실지회에서 추천받아 취약계층 80세대에 지원했다.

김인숙 센터장은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장수읍, 가족 참여형 '아이조아 축제' 8월 8일 개최

장수군 장수읍에서 추진 중인 '아이조아 축제'가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장수읍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개최일을 오는 8월 8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근 장수읍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축제 준비 계획과 추진 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급박하게 결정된 일정에 따라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홍보 전략, 안전 대책 등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신속한 실행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이조아 축제'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축제로 장수읍이 주관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행사다. 축제 당일에는 체험 부스, 공연, 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동근 위원장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축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용담댐, 로컬브랜딩 '청신호'

고유자원·수변 공간 결합 댐 로컬브랜딩 최종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 '댐 로컬브랜딩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활력 제고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공모는 지역(로컬) 고유자원과 댐 주변지역의 수변 공간을 결합해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안군은 11개 지자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진안군만의 독창적인 브랜딩 전략과 민간기업, 지역주민의 참여 계획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진안군을 비롯해 안동시, 양구군 총 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댐별로 마스터플랜 수립비 등 2억원이 지원된다.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2026년까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27년부터는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진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용담댐을 활용한 차별화된 로컬브랜드 구축으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숙련도 '우수'

전국 평가서 분석 정확성·신뢰도 확보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9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2개의 미지시료에 대해 농촌진흥청 고시 방법에 따라 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결과값을 제출하면 설정값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평가는 토양분석기관의 분석 정확도 향상과 숙련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며, 각 기관의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토양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매년 약 2,500점의 토양을 분석해 농업인에게 맞춤형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적정 비료사용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토양 상태가 궁금한 농업인은 토양시료 500g 이상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석 및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서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 성료

213개국 100여명 참가 AI 태권도 개발 등 조명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5일과 6일 양일간 무주태권도원 나래홀에서 개최됐다.

'태권도 가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들의 지속 가능한 융합 패러다임 연구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213개국 태권도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대한체육회, 국제심판 및 해외 태권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5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성악, 스포츠댄스, 탭댄스,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개교 등 태권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태권도의 미래 동력이 될 AI 콘텐츠 개발의 계기가 되고 태권도의 가치 혁신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콘퍼런스 첫날인 5일에는 △AI 기술과 태권도 경기·교육 혁신 △AR 기반 AI 태권도 개발 △AI를 활용한 스포츠 통계와 심판 판정 등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올림픽과 태권도 AI △AI와 인간 가치의 균형 △AI 기반 경기 판정 혁신 등 첨단 기술 융합 사례가 집중 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6일에는 △태권도 AI개발의 수용 범위에 대한 고찰 △AI 기반 태권도 겨루기 판정 모델 △AI를 활용한 태권도 외적 확장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실무적 비즈니스 논의가 진행됐다.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태권도 AI 콘텐츠 개발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태권도 산업 및 정책 개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道 산불진화임도 부문 평가에서 '1위'

자료·현장평가 항목 우수 국·도비 인센티브 증액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산불진화임도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임도 신설 사업지를 대상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의 현장평가와 자료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임도는 임실군에서 시행해 신평면 창인리 일원에 개설한 두곡~창인 산불진화임도(0.68km)로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시공했다.

해당 구간은 임도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행 과정의 적절성 등 자료 평가 항목과 절·성토 사면 및 노면의 안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 현장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2026년도 임도사업 예산 국·도비 인센티브를 증액받게 돼 임도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 진화 등 산림 재해의 신속한 대응 및 농·산촌 마을의 교통 개선을 위해 임도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군민들에게 문화 및 독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장수군 작은도서관이 7월을 맞아 군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책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7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각 읍면단위에 건립된 작은도서관은 장수,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모두 6곳이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이들 도서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매달 다양한 주제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독서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7월 둘째 주에는 △'책읽는 힘: 매일의 독서습관 만들기'(산서) △'책 읽는 장마 요정'(산서) △'생각이 자라는 꿈나무 놀이터'(번암) △'책향기~나무향기'(천천) △'그림책과 함께하는 세라믹아트 나만의 접시 만들기'(계북) △'냠냠! 꼭꼭 맛있는 그림책'(계북) 등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장수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 및 각 작은도서관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단 일부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도서관에 대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확대

진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 청사에서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진안군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한국 농촌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안군은 선발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직접 현지를 방문해 송출 기관과 예비 근로자들을 만나고, 교육 현장을 확인하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협약 체결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영농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이웃으로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16일까지 신고 마감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전북도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진안군이 7월부터 전북 최초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안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수정 지원금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상향하며 체외수정 동결 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돼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난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완주 화산중 교직원·학생들, 어르신께 '닭볶음탕 밀키트' 전달

완주군 화산면에 소재한 화산중학교(교장 심웅택)가 지난 3일 지역사회를 위해 닭볶음탕 밀키트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화산중학교는 평소에도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과 나눔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준비한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주무지개로타리클럽, 제31대 회장 장경아 취임

"우리 함께 선행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클럽 제30·31대 회장·임원·이사 이·취임식이 지난달 23일(월) 저녁 7시, 전주시 '오늘의 하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1대 장경아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장 회장은 국제로타리의 2024-25년 테마인 "우리 함께 선행을"을 중심 메시지로 삼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회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실천을 이어가겠다"며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전주무지개로타리클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준호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클럽 제30·31대 회장·임원·이사 이·취임식이 지난달 23일 저녁 7시, 전주시 '오늘의 하루'에서 열렸다

<사진=전주무지개로타리클럽>

김제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소은경)가 지난 4일 김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설렁탕 배식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을 비롯해 10명의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에 참여했다.

소은경 회장은 "김제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를 분기별로 추진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90세 어르신 생신 상 차려드리기

"만수무강 하세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민호)에서는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숙자)와 함께 지난 3일 계북면 양악마을회관에서 90세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지원사업으로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난 2일 장수군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회장송영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회관에 전달할 쑥카스테라빵을 직접 만들고 지난 3일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양악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신을 맞으신 90세 여자 어르신을 위해 축하의 덕담을 나누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올해 장수군 번암면을 시작으로 상반기 7명의 독거 어르신을 위한 생산 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희숙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홀 몸 어르신들을 더 살피며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곰소꽃게장 전혜성 대표, 부안군에 성금 100만 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일, 지역 향토음식점 곰소꽃게장의 전혜성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혜성 대표는 "낚시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을 지역을 위해 의미 있게 쓰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복지, 교육, 환경,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혜성 대표는 작년에도 2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로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무주군에 선풍기 40대 기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무주군 저소득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선풍기 40대(2백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지난 4일 무주군청 국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연상 이사장과 박종칠 노조위원장 등 공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 물품은 지난 5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한 여름나기'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최의호 기자

마루건설이앤씨, 정읍시에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마루건설이앤씨㈜(대표 고병수)가 지난 3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정읍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고병수 대표의 의지가 담긴 실천이다.

마루건설이앤씨는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공사구간 인접 사전조사,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고병수 마루건설이앤씨(주) 대표는 "정읍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용안면,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 조성

익산시 용안면은 주민자치회가 올가을 고향을 찾는 가족과 방문객에게 정겨운 시골 풍경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달, 용안면 주민자치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성치마을을 시작으로 도로변 5.4㎞ 구간에 제초 작업을 진행하며 꽃길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앞으로도 제초제 살포와 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석 무렵에는 활짝 핀 코스모스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철우 용안면 주민자치회장은 "코스모스 꽃길이 우리 고장을 찾는 이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일이 보람차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남중동, 마을 축제로 모은 기금 200만 원 기탁

익산시 남중동은 지난 4일 지역 단체가 마을축제로 마련한 기금 200만 원에 대한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달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제2회 남중 앤 정(情) 마을축제'에서 모금된 단체기금 및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정병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남중동에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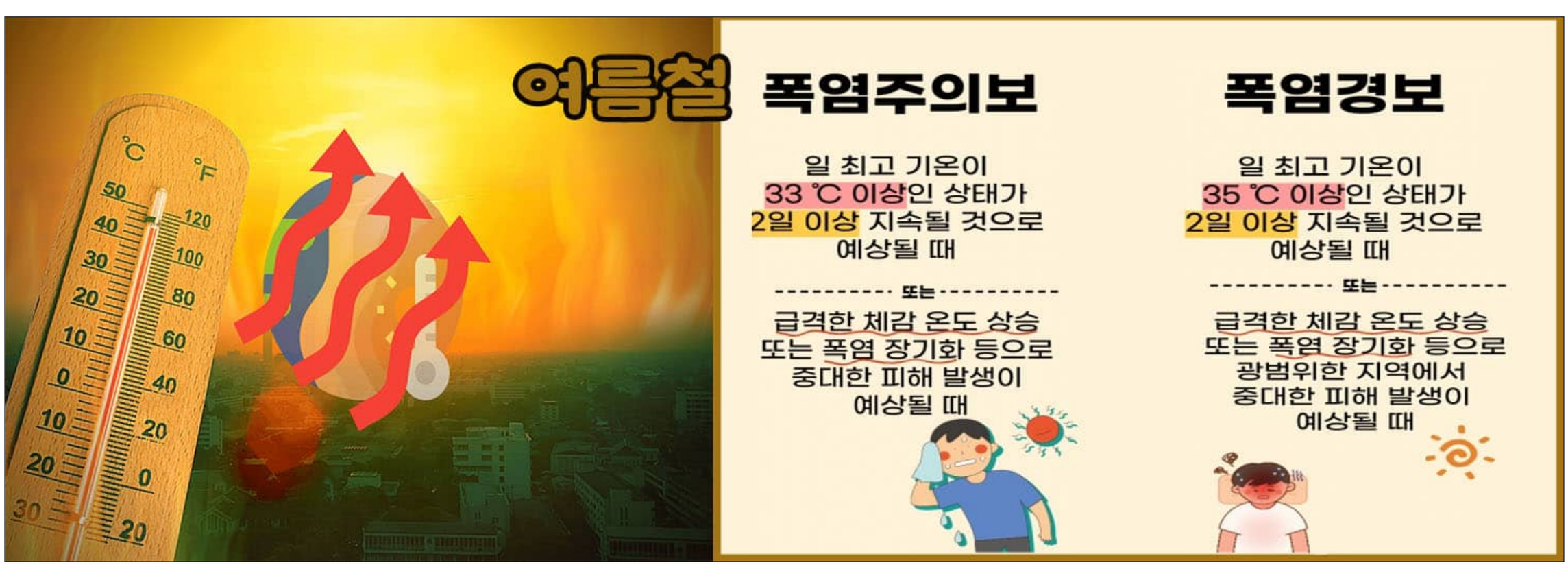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노암동지사협, 취약계층에 여름 보양식 삼계탕 전달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사계절 이웃사랑 행복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찾아가 삼계탕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한 어르신은 "요즘 날씨가 더워 식사 준비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삼계탕을 직접 가져다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一事一言〉

고백한다, 30년 기자인데 언론 윤리를 몰랐다(2)

송요훈
언론인

예를 들어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보고는 도중에 중단시켰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떤 매체는 국정기획위가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쳤다느니 군기 잡기를 한다느니 갑질을 한다느니 하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 보고를 중단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업무 보고의 내용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는데, 검찰은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단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과 방통위의 독립은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방통위의 보고에는 반성도 개선 방안도 없었다 하고, 해수부의 업무 보고에는 부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같이 보도해야 독자들은 국정기획위가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 언론 윤리는 그런 보도를 '사실 보도'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헌장에는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하고,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기자협회의 윤리헌장을 읽어본 기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것 같다. 30년차 기자가 되도록 글자로 된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나처럼.

우리 언론의 보도에선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보도,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 대중의 분노를 조장하는 괴벨스식 보도가 횡행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선일보가 확산시킨 '혼밥 외교' 보도가 그러하다. 심지어 정치공작에 동원된 듯한 보도도 있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공작을 수사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온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가 그러하다. 그 모두가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한다면 활자화할 수 없는 보도들이다.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취재원 보호가 그렇다. 내부고발자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내부의 깊숙한 비리를 알 수 없고, 누구인지 드러나면 신변의 위협이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만 적용하는 게 '취재원 보호'다. 미드 〈뉴스룸〉에도 나오듯이 취재원 보호는 기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와 보도 책임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다. 기사에 '관계자'로 대표되는 익명을 남발하고 그 익명이 누구냐고 물으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 건,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윤리를 잘못 알고 오남용하는 것이다.

정보든 자료든 의견이든 출처를 밝히는 실명 보도가 언론의 윤리이고 보도의 기본 원칙이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 특종 보도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연루되어 있다. 청와대의 사주를 받은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고 조선일보가 총대를 메고 폭로했다는 것이 언론계에 알려진 정설이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에 '뒷조사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는 취재원 보호의 대상일까? 아니다. 그 취재원은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공익제보자도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제보자이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정치공작의 일부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 경우의 취재원 보호는 언론 윤리를 오남용하여 정치공작에 연루된 범죄자를 은닉하는 불법행위라 하는 게 옳다.

기사를 읽다 보면 왜 지금 뜬금없이 이런 보도를 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MBC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그러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온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가 그러했다. 기자들에게 언론 교과서라 불리는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는 그런 보도를 할 때는 독자,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입수한 경위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과정 그리고 왜 보도하기로 결정했는지 등을 독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쓰여 있다. 그래야 독자, 시청자들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 보고 중단을 '호통' '공무원 군기 잡기' '갑질'이라고 왜곡하는 보도가 기자로 살아온 내 눈에는 이재명 정부 5년을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만들겠다는 '예고편'으로 읽혔다면 과민할 걸까. 맥락이 무시된 비판과 뜬금없는 의혹 제기와 누군가 깃발을 들면 기자들이 이리떼처럼 몰려들어 물고 뜯던 '마녀사냥'이 재현될 거라는 전조로 읽혔다면 기우일까.

나는 지금 기자들이 언론의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언론 윤리가 독자들을 홀리는 언론사의 장식품이 아니라 혹세무민의 여론 조작질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기자들이 더 이상 '기레기'라 불리지 않게 되기를. 이재명 정부 5년은 언론이 언론답게 정상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것이 기자로 살아온 나의 소망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전주 'AI신뢰성센터' 공모사업 통과의 의미

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AI신뢰성혁신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전국 유일의 선정지로 통과한 것은 지역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 덕진구 첨단벤처단지 내에 AI신뢰성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기재부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탄력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통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AI위험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해 AI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그 신뢰성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주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 사업의 중심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전주에 들어설 AI신뢰성센터는 AI서비스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신뢰성 검증과 향상, AI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지원, 신뢰성 검·인증 장비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연관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의 거점을 선점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정동영 의원의 입법 및 정책 추진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AI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전략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전주 유치가 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주도권을 놓고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는 '소버린AI' 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이번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앞으로의 절차와 추진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정교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산업계, 학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간 전북은 정부 공모사업에서 다소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AI신뢰성혁신허브센터 통과는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이 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구현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북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주의 이번 성과가 지역 전체 발전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오늘의 시

찔레 / 문 정 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가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 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만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 갔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재열전

순창 만일사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지정일 - 2017년 11월 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103-134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춘성 진안군수 민선8기 3주년

"지속가능한 생태치유도시 실현,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본격화"

전춘성 진안군수가「민선8기」출범 3주년을 맞았다. 진안군은 마이산, 용담호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생태관광·녹색도시·생명농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점차 본궤도에 오르며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 군수는 "진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자산을 갖췄음에도 오랜 기간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지역의 생태자원과 고유한 지역 자산이 미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안 자산, 미래 경쟁력으로 생태자원 활용한 전략사업 추진

□ "방문에서 체류로" 진안군, 체류형 생태관광지 전환 본격화

진안군은'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군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을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연 친화적 도시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국책사업 유치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방문'을 넘어'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숙박·체험·여가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머무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권역에는 숙박시설인 '마이테라피 타운'과 '마이스테이', 힐링 콘텐츠 '4색 에너지 충전소' 등을 조성해 방문객이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권역에는 물놀이터와 캠핑장 조성이 추진 중이다.

□ "관광축 집중 해소 권역별 연계로 균형발전 추진"

군은 전 지역의 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권역별 자원 연계형 관광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정 명소로의 관광 집중을 완화하고, 군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백운면 신광재 일원에는 총사업비 1,913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사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5년 9월 개원을 앞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데미샘자연휴양림을 연계해 산림치유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분산형 관광정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스포츠·관광 융합"으로 자연 속 스포츠 도시로 부상

진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대규모 체육·문화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OTT파인드, 크로스핏, 파크골프 등 체류형 스포츠·관광 연계 행사를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관광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최지로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첨단농업부터 대규모 에너지사업"까지 신성장 기반 구축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과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진안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첨단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 중이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해외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인력교류 협약을 체결,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숙소 제공, 전담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력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인 홍삼 산업 고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IC 인근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생산·가공·판매를 집약화하고, 마이산 관광단지와 연계 도로를 개설해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발전소 유치 시, 지역 내 소비 증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확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살고 싶은 농촌도시' 실현 주거·문화 인프라 강화

진안군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농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농촌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받았다. 진안군의 순위 상승은 풍부한 자연 환경과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군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36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월랑지구에 600세대 규모의 정주시설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학천지구에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복합광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군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체감행정 실현, 공약이행 A등급

진안군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과 목표 달성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2025년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군은 민선8기 핵심가치로 '군민 소통'을 내세우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온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효했다.

□ "지역 숙원사업 해소 나서 군민 기대감 확산"

진안군은 군민 권익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용담댐 생활용수 공급 문제 해결이 큰 진전을 이뤘다.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주요 수원임에도 정작 진안군민은 지방상수도에 의존해 왔다.

이에 진안군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진안군 공급계획 반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경제성 부족으로 환경부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도 지방비 49억 원을 확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용담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절차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용담호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권익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 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춘성 군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과 혁신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마무리

전 군수는 "지난 3년은「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 기반을 다져온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진안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안의 소중한 생태자원과 지역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군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